



- ▶ 2007. 9. 24 배포
- ▶ 총 4 쪽 (사진없음)

보 도 자 료

- ▶ 노사갈등대책과장 권혁태
- ▶ 담당 서기관 정경훈
- TEL : 2110-7343
- E-MAIL : tycoon@molab.go.kr
- F A X : 503-973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< '08년도 노사분규 분석 및 평가 (8월말 기준) >

**노사관계 안정기조에도 불구하고,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
노사분규가 집중발생하고 근로손실일수도 대폭 증가**

-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분규가 95% 금속노조는 전체의 55% 차지
- 평균 파업기간이 31일, 교섭타결시까지 평균 132일이 소요
-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중앙-지부-지회 교섭에서 분규를 다단계 화
-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요구로 인한 분규 빈발

1. 분규 현황 분석

- 노동부의 '08년도 노사분규 분석결과(8월말 기준), 전체 노사 분규는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, 금속노조(민주노총) 사업장의 분규비중(전체분규의 55% 차지)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* 8월말 현재 분규 발생건수는 교섭단위 기준으로 총 80건(전년동기 81건 대비 1.2% 감소)

- 전체 노사분규는 사업장 단위로는 총 106건으로 전년동기 178건 대비 대폭 감소
-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76건(전체의 95%), 한국노총 4건으로 대다수 분규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

- 연맹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44건(55%)으로 전체 노사분규의 절반이상을 차지
- 특히 금년도는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
 - * 금속노조 노사분규 발생 건수(전체대비 비중) : '06년 47건(138건중 34.1%) → '07년 34건(115건중 29.6%) → '08.8월말 44건(55%)
 - * '08. 9. 23 현재 금속노조 노사분규 비중은 56.7%
- 업종별로는 제조업(자동차 및 부품, 기계, 화학, 전자제품 등)이 53건(66%)로 다수를 차지
- 신규노조 사업장에서도 노사분규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전체(80건) 중 19%(15건)을 차지
-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전체 노사분규 17건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고, 특히 금속노조가 13건(76.5%)으로 절대다수를 차지
 - * 외투기업 노사분규 : '07.8월 11건 → '08.8월 17건으로 증가
- 분규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타결 시까지 1건당 평균 132일 소요 되어, 교섭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
 - 신규노조 사업장의 교섭기간은 1건당 평균 186일로, 기존노조 사업장의 평균 120일보다 장기간(66일) 소요
 - 교섭회수는 평균 16회(실무교섭 2.7회<실무교섭을 한 사업장만 포함시 5.8회, 본교섭 13.3회)며 신규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회수가 평균 19.5회로 기존노조 사업장 평균 15.2회 보다 4.3회 많음.
- 평균 파업기간은 31일로, 파업기간이 과도하게 길며, 평균파업기간 이상 사업장(23개소)중 신규노조가 34.8%(8개소)를 차지함
 - * 평균 분규지속일수: '03. 29일 → '04. 24.7일 → '05. 48.6일 → '06. 54.4일 → '07. 33.6일

□ 근로손실일수는 660천일로 전년동기(364천일) 대비 55.2% 증가
(연도별 비교시 2000년대 이후 중간 수준)

* 8월말 현재 연도별 근로손실일수 : '98. 1,018천 → '01. 647천 → '02. 1,279천 → '03. 1,087천 → '04. 1,010천 → '05. 434천 → '06. 1,041천 → '07. 364천

○ 전년보다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주원인은 금속노조의 산별 교섭과 전년도에 발생한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에 기인함

* 금속노조의 완성차 4사에 대한 산별중앙교섭 참여 압박 등 관련 파업(금속노조 근로손실일수: '07. 22천일 → '08. 165천일(656.8% 증가)

* 6개월 이상 장기분규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가 약 40%를 차지(A사 이외에는 L사 등 3사는 전년도 이월 사업장)

□ 분규발생 원인은 대부분 임단협과 연계되어 임금인상, 노조 활동(전임자, 노조사무실 제공 등), 고용안정(구조조정, 정년연장 포함)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(전 사업장 공통)한 것으로 나타남

* 파업기간이 평균보다 긴 사업장의 핵심쟁점도 임금인상 52.2%(12건), 고용안정 30.4%(7건), 노조활동보장(전임자 인정, 노조사무실 제공 등) 26.1%(6건), 중앙 또는 지부교섭 참여 17.4%(4건) 등으로 유사

○ 특히, 전년도 이월 사업장을 포함, 장기분규사업장의 경우 상급단체 개입 징계 및 민·형사상 책임문제가 맞물려 쟁점이 변질되어 해결이 곤란해지고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음

* 해고자 복직 및 민형사상 면책 문제가 타결의 전제가 되며,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구조로 변화

2. 특징

□ 지표상으로는 전체적인 노사관계 안정기조에도 불구하고,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의 분규 다발 등 문제점 상존

○ 특히, 금년도는 완성차 4사의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참여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과 현대차 및 기아차의 지부교섭 타결 지연이 특징

- 전통적인 갈등이유인 임금인상 문제 외에 ▲금속노조의 교섭(중앙, 지부, 지회교섭 포함) ▲고용안정 이슈(구조조정, 원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) ▲노조 활동(전임자 요구 등) 문제가 주된 분규요인으로 작용
- 일부에서 주장하는 “산별노조의 분규감소 효과”는 금속노조의 경우 타당하지 않으며, 오히려 갈등을 다단계화 하는 경향
 - 본조 지침에 따른 파업(7.2 정치파업, 7월 중앙교섭 관철파업) → 지부 → 지회 임단협 관련 다단계 파업 구조가 고착화
 - ※ 7~8월 중 금속노조 D지부(H사 등 7개사), T지부(D사 등 7개사), K지부(7개사), G지부(7개사) 등 지역지부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기업지부(G사 등 4개사)도 파업
 - ※ D사는 중앙교섭, 지부교섭, 지회 개별교섭 과정에서 모두 파업 돌입
- 특히 신규 설립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(금속노조) 소속 사업장에서 전임자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 빈발하는 경향
 - 소수 조합원, 회사 상황 등에 무관하게 무리하게 전임자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(임단협에서 전임자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거나, 임단협에서 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)
 - < 소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, 노조전임자를 요구하는 사례>
 - ▲S사(조합원 11명, 전임자 1명, 사무실 요구) ▲SH사(조합원 56명, 전임자 2명, 사무실 요구) ▲L사('06.6.20~'08.8.10 2년간 분규): 조합원 14명, 전임자 및 사무실 요구) ▲D사(조합원 52명, 전임자 1명) ▲M사(조합원 13명, 부분전임자 2명) ▲K사 (조합원 87명, 전임자 2명) ▲G사(조합원 27명, 전임인정) ▲Y사(조합원 85명, 전임자 2명) ▲DS사(조합원 23명, 전임자 추가) ▲A사(조합원 18명, 전임자 인정) ▲B사(조합원 19명, 전임자 1명 요구) 등 다수
 - 한편 지역노조의 전임자 확보 요구가 분규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존재
 - ※ M사 조합원 204명 중 전임자 35명 → 지역지부 1명 추가 요구(지부장 당선시)
 - ※ 금속노조 K지부(4,711명): 지역지부 노조전임자 추가(1천명당 1명)